

아시아 최대규모 스마트병원 마곡서

이대병원, 환자 중심에... ICT접목 '완벽 의료환경'

대학병원 최초 기준병실 3인실
예약·신규환자 등 첫진료 마쳐
2층 갤러리서 오픈행사도 진행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마곡 시대가 열렸다.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 이대서울병원이 7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이날 문을 연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기준 병실 3인실, 전체 중환자실 1인실의 새로운 병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새로운 병원으로의 인력 이동과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본격 진료를 시작한 이대서울병원은 첫 날 기준 예약을 마친 환자들과 새롭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맞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오른쪽 아홉번째)과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오른쪽 여덟번째)이 7일 열린 개원기념행사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오른쪽 첫번째)이 7일 이대서울병원을 처음 찾은 환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아 큰 관심 속에 첫 진료를 무난히 끝냈다고 밝혔다.

이화의료원 관계자는 "환자 몇 명이 방문했는지는 집계하지 못하지만, 기존 환자들과의 예약과 신규 환자까지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며 "병원 방문자들은

물론 의료진들도 새로운 의료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대서울병원 첫 진료 환자가 된 강호준 씨는 "큰 규모와 쾌적한 환경, 인상 깊은 다양한 조형물에 눈길이 먼저 간다"면서 "앞으로 강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다양한 개원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병원 3층 방주교회에서 진행된 개원 첫 예배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 한중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이화의료원 교직원들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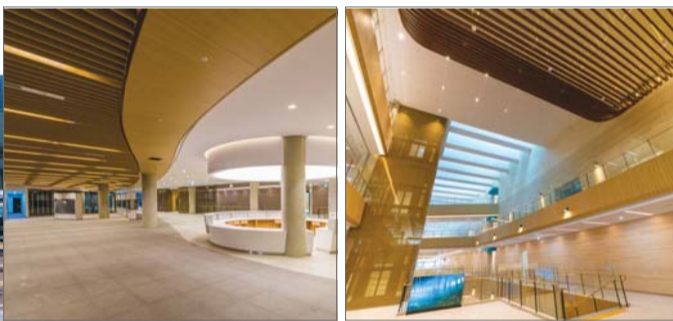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5년 착공한 이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대서울병원 진료 개시에 이르러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대서울병원이 환자들의 아픈 몸뿐만

문병인 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대서울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병실 구조와 새로운 진료 시설 및 시스템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자 치료는 물론 대학병원으로서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문 원장은 첫 예배를 마치고 1층 로비에서 개원을 기념한 떡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고,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가족에게 떡과 병원 안내물을 나누어 주면서 첫인사를 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대서울병원 2층 갤러리 '아트큐브'에서 개원 기념 전시회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 아트큐브는 이대서울병원 내원객들에게 현대 미술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2층에 만들어진 전시 공간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디포럼 김찬규 대표(왼쪽)와 LSK Global PS 이영자 대표가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후보물질 'PM012'의 임상시험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K 글로벌-메디포럼

알츠하이머 치매치료제 공동개발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S)는 메디포럼과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후보물질 'PM012'의 임상시험과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LSK Global PS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메디포럼의 천연물 기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PM012에 대한 2상과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수 조원의 개발비를 쏟아 붓고도 번번이 실패했을 정도로 개발이 어려운 분야이며, 정부도 국정 과제로 삼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두 국내 토종 기업이 현재

가장 극복이 절실한 질환의 치료제 분야에 공동 연구 개발을 발표해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PM012는 국내에서 개발한 천연물 기반 치매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9월 21일 2상과 3상 시험을 허가받았으며, 천연물을 사용하여 기존 화학합성물(chemical) 대비 부작용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다양한 신경과학(Neuroscience) 치료제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포함해 임상시험 역량 및 노하우를 가진 LSK Global PS와 메디포럼의 기술력이 만나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美FDA 신약허가 심사 착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이트' NDA 후보물질부터 신청까지 독자진행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신약의 미국 판매를 위한 마지막 심사가 시작됐다. 최종 허가 여부는 오는 11월 밝혀질 예정이다. SK바이오팜은 7일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세노바이트 신약판매 허가 신청서(NDA)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지난 11월 FDA에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NDA를 제출한 바 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DUFA)'에 따라 약 10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21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 치료제로 SK바이오팜이 중도 기술 수출 없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시험, FDA 허가 신청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국내 첫 신약이다. FDA의 시판 허가를 획득하게 된다면 미국 상업화 과정 역시 미국 법인인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앞서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NDA를 제출했다.

1900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시험의 결과는 미국 신경과학회(AAN) 및 미국 뇌전증학회(AES) 연례 회의 등 전문 학회 행사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SK바이오팜의 조정우 대표는 "지난 10여년 간 미국 내에서 임상에 참여한 전문의들과 환자들과 함께 세노바메이트의 약효와 안전성에 대해 교류해왔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 내 판매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노바메이트의 상업화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 리틀야구 국가대표팀에 마데카솔 등 20종 전달

동국제약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리틀야구 국가대표팀에 '파데기술연고' 등 구급용품 20여 종이 담긴 구급함과 야구용품 등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리틀야구 전용경기장 화성드림파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한국리틀야구연맹 한영관 회장과 리틀야



동국제약 서호영 이사(맨 앞줄 오른쪽)가 1월 30일 경기도 화성드림파크에서 리틀야구 국가대표팀 박종호 감독(맨 앞줄 왼쪽)에 구급함과 야구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구대표팀 박종호 감독 및 선수들, 동국제약 서호영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 함께한 한영관 한국리틀야구연맹 회장은 "매년 리틀야구 국가대표팀을 위해 야구용품과 구급함을 후

원해 주는 동국제약에 감사하다"며 "2018 세계리틀야구 월드컵시리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기량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